

오늘 말씀 제목은, 롬 11:33절에서 취한 것임을 이미 아시는 줄로 압니다.

33절은, 문장의 형식으로 하면, 감탄문(感歎文)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Oh, *the dep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s **beyond tracing out!**

의역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탄하며 사시는지요? 감탄의 감성이 풍부하신가요? 항상 씨리어스만 하고, ‘하루’라는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사시는지요.

민족(民族)을 향한 고뇌(苦惱)로 가득찼던 바울이, 여기서 왜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가 감탄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理由)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전 바울이 감탄한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롬11:25-27)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神祕)**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 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充滿)한 수(數)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몇가지 단어를 살펴봅시다. (신비,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

1) 신비 : 神祕는 귀신 ‘신’, 귀신 ‘비’입니다.

영어는 이 단어를 mystery라고 합니다. '미스테리(Mystery)'의 한국어 의미는 신비, 수수께끼, 불가사의, 애매함 등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 현상, 비밀 등을 뜻하며, 추리물이나 탐정물 장르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요즘 화제의 인물 중의 하나인, 스페이스X(SpaceX)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때에 트위터를 'X'로 바꾼 이유는, '모든 것을 하는 슈퍼 앱(Everything App)'으로 만들겠다는 비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는 X를 미스테리(Mystery), 실험적(experimental),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Moonshot), 기하급수적발전 (Exponential)등의 의미로 도전,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X를 썼다고 해요.

수학 공식(방정식)에서 'X'는 미지수(unknown)'를 뜻합니다.

유대인 구원이, 바울에겐 ‘Mystery’였고 ‘X’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아진 미스테리가 바울의 기쁨이 되고, 신비가 된 것입니다.

이 미스테라란 말은,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미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스테리란 말을, 바울은 ‘수수께끼, 불가사의, 애매함 등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반대(正反對)로 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두 구절(16:25-27)에서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이 신비는 로마서의 마지막절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神祕)의 계시(啓示)**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福音)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榮光)이 세세(世世)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 신비의 내용: ‘**이방인의 충만(充滿)한 수(數)가 들어오기까지**’/‘**온 이스라엘이 구원**’

이 말은 신비가 구원의 신비와 이방인의 신비라는 말입니다.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神祕)**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充滿)한 수(數)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곳은, 여기 로마서 11:25 단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1:12절에서 나온,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에서 라는 표현의, 진보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논리(論理)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점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는 기록된 구약성경의 말씀으로 풀니다. 그는 이사야서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롬 11:26-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보다는, 큰 회심(回心)이 일어나, 많은 유대인의 구원(救援)받게 될 것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오심과 죄사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宣布), 성취(成就)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約束)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상의 근거를, 이사야 59장 20-21절에서 찾았습니다.

20.“**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11장을 어려워합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로마서 9-11장은, 유대인의 구원문제가 핵심(核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자비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며,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기회가 되었지만, 때가차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롬1:16절에서 나오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지혜, 최고의 감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문제를 해결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구원을 위해 삶을 바쳤지만, 동족을 향한 애정, 동족이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하여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는 민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 하여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해,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充滿)한 수(數)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의 발견은 바울에게 대단한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여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때, 자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남의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부리던 아이도, 스스로 입을 벌리고 “아, 아”하면서 엄마에게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남의 아이에게 밥을 다시 주진 않습니다.

이 예화(例話)는, 여기까지가 한계(限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은 찬밥이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을 가지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 이방인을 부르시는 최적의 타이밍을 보고 계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예지(叡智)의 하나님, 전지(全知)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3장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엡3:9)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計劃)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神祕)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II. 바울이 감탄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제, 로마서 11:28-29절입니다)

28.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는 정반대의 상반된 감정이 드러납니다. 원수: 사랑하는 자라는, 두 반대 개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원수(怨讐)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迫害)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하면 할수록, 동족(同族)에 대한 사랑은 더 가슴에 파고 들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끊임없는 고통(苦痛)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멸망을 당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때가 찬 다음엔,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나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서 안식(安息)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질서가 있고, 후회가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서, 행복한 평안의 상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위대한 선언(宣言)같은 것을 합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NIV). For the gifts and calling of God are without repentance (KJV)

1) 은사(恩賜)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론 단순히 Gifts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본 “은사”의 예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전반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포함된다. 1) 구원 자체: 죄 사함, 의롭다 하심, 성령의 내주와 같은 구원 현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된다. 2) 성령의 은사들 (고전12장참조) 3) 직분과 사역의 은사(엡 4장) 4) 성품과 삶의 은사(성령의 열매) 등등.

2) 부르심은, 본문의 배경에서, 유대인(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사람만 부른 게 아니고, 이방인도 부르신 셈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처럼, 하나님이 다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구원계획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인가?

2)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철회(撤回)하지 않으시고, 책임(責任)을 지시는 분이시다는 것인가? 죄(罪)와 불순종(不順從)이 있어도, 언약과 선택 자체를 거둬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신분을 취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11:28),

3)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順從)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失望), 낙담(落膽)하지 않으신다는 말일까?

저는 3번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날 만드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의 방황(彷徨)을, 나의 좌절(挫折)을 바라보시면서도, 나를 구원(救援)하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니 마음에 감사하고 평안해 집니다.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실수(失手)와 실족(失足)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요약(要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뛰어남입니다.

1. 섭리의 신비함과 2.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깊도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III.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롬11:30-32)

30.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 위 구절은, ‘순종’과 ‘긍휼’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 절에는, 순종치 아니함과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 구약에서 긍휼은 ‘라함’(동사 רחם, 명사 רחמים)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서(1:6, 2:4, 2:23) 이사야서 49:10 시편 등에 나옵니다. 원래 ‘라함’은 womb (자궁)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태(胎)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 긍휼입니다. 젖을 빠는 아기와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간의 관계에서 긍휼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 103:13: “**아버가 지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정의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에서 “**불쌍히 여김**”이 라함이란 동사입니다. 라함(רחם)은 발음이, 아브라함(אַבְרָהָם)의 라함과 같습니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아브람을 99세에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고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겠습니다.

요한 왜슬레가 한번은 어머니가 감추어둔 사과를 몰래 훔쳐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울면서 왜슬레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맛을 때 왜슬레는 자신이 이렇게 맞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

참으로 절묘한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식에 대한 긍휼, 여기엔 3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 1) 이방인인 너희가 이스라엘의 순종치 않음으로 긍휼을 입었다.
- 2) 너희가 얻는 긍휼로 인해, 이스라엘사람에게도 긍휼을 입게 할 것이다.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차면)
- 3) 내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둠’의 목적(目的)은(이 표현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참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고 합니다.

거참, 하나님의 은혜가 거시기합니다. 특별합니다. 거시기 하지 못한 우리를, 거시기하게 하시려는 거시기하신 하나님의 거시기하심에, 참으로 거시기하게 감사합니다. ㅎㅎ

*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긍휼의 삼각관계, 삼각합수는 이렇게 풀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결론은, 우리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라고 찬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송영(Docology)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을 보통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頌靈인데 (칭송할頌 신령靈) 즉, 영이신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doxologia 인데 찬양, 영광, 영예라는 뜻을 가진 ‘doxa(독사) + 말씀(logia)의 합성어입니다. 즉 송영이란 하나님에게 영예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역사적으로, “송영은 = 끝부분의 짧은 삼위일체 찬양”이라는 패턴이 강해, 예배·찬송의 마지막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傳統的)인 모습입니다. 바울사도는 9-11장의 부분을, 송영으로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11:32절의 긍휼에서 12:1절의 자비로, 그 주제를 옮겨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바로 송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압도당하였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1-11장을 교리로, 12-16장을 윤리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1장의 결론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을 항상 찬양으로 끝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감사로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때에 울면서 끝낸다면, 그것은 좋은 마침이 아닙니다. “**밤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시편30:5) 고통스럽게 탄식의 말을 토해내는 시편기자의 고백은, 조금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가끔 반대도 있기는 합니다만)

“**깊도다**” 하는 바울의 찬양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신적인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경탄입니다. 이제와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과 하나님 체험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대표적인 찬양송이 있습니다. 둘 다 4세기까지 올라가는 송영들입니다.

하나는 큰 송영(the Greater Doxology)이라 불리우는 Gloria in Excelsis(엑셀시스)입니다.

다른 하나는 작은 송영이라 불리우는 Gloria Patri (the Lesser Doxology)인데요.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2)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찬양하였지만 인간은 그 제한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모습을 이해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 그대로를 찬양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당신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예측불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것들이 있다.**” 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습니다.

복음성가 : <그 사랑 얼마나> 라는 노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닳지 못해도 나 닳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맺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송영’은 예배의 끝 순서가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심이며, 예배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는 사람을 사는 것, 그것은 살아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송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천국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